

# 아시아 문화자원 ODA 10년 돌아본다

〈공적개발원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문화자원관리 ODA 10년 성과를 돌아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ACC는 오는 19일 국제회의실에서 미얀마·키르기스스탄·라오스·몽골 등 협력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열고, 아시아 문화자원의 디지털 관리와 활용 가능성을 공유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 지원을 의미한다. ACC는 문화유산 디지털화와 콘텐츠 개발을



ACC가 지난해 12월 라오스 루앙프라방왕실박물관에 장비를 기증했다. 사진은 기증식 모습.

## ACC, 내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ODA 성과와 미래' 포럼 기조강연부터 전문가 토론까지...아시아 협력 모델 확장 논의

중심으로 한 문화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해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ODA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ACC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사)무형문화연구원, (주)인디고가 공동 주관한다. 국가 유산청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라오스·몽골 문화부 등 국내외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CC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ODA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은 ▲개회식 및 기조 강연 ▲협력국 문화부 세션 ▲전문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조 강연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민대 석좌교수)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ACC의 문화 ODA'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ACC의 국제 협력 철학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어지는 협력국 문화부 세션에서는 ACC와 협력해온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의 문화부 관계자들이 자국의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 경험과 과제를 발표한다.

오후에 열리는 전문가 세션에서는 ACC ODA 사업에 참여한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화자원 관리 및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한 ODA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국가유산청 한나래 학예연구관, 강상인 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KOICA 이중수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ACC는 201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ODA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2018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문화자원 디지털화와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등으로 협력국을 넓히고,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까지 목표를 확대하며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특히 미얀마 지진 피해 이후 ACC는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키르기스 영웅서사시 '마나스'를 바탕으로 한 공연 '세메데이' 제작, 라오스 고문서 '바이란(베엽경 貝葉經)'에 관한 도록 출판 등 협력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는 개관 10주년과 ODA 사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되짚고, ACC 문화 ODA의 향후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한다"며 "문화정보 통합 아카이브 서비스의 가능성, 연구조사와 콘텐츠 개발 등을 주제로 한 새로운 ODA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ACC-키르기스스탄 국제협력공연 '세메데이' 무대

## 새 정부 성평등 정책, 지역 목소리로 듣다

### 광주여성가족정책포럼, 오늘 DJ센터

(재)광주여성가족재단은 18일 오후 1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14호에서 제28차 광주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성평등 정책 - 지역 여성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번 포럼은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광주지역의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다.

1부 발제에서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기조를,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는 정책 방향을 각

각 발표한다.

2부 토론은 최지현 광주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박주희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타아림 전남대 경제금융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슬기 기자(다시 만날 세계에서) 공저자, 김효경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광주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정책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최명진 기자

## 파킨슨병 환자 최은순 어르신, 생애 첫 개인전

22일까지 담양문화회관 1층 전시실

'더할 나위 없어라' 주제 45점 전시



전남 담양에서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한 희망의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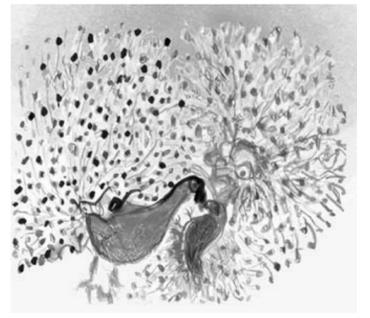
담양문화회관은 17일 "오는 22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최은순 작가의 개인전 '더할 나위 없어라' 주제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개인전이 아닌 한 사람의 삶과 고통, 인생 회복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이자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에게 전하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다.

단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 없는 80대 파킨슨 환자 최은순 씨의 감동 실화를 담은 생애 첫 개인전이다.

파킨슨병을 앓는 중에도 시간과 몸이 허락하는 한 기력을 다해 그림을 그리는 최은순(82·여) 어르신은 평생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왔다.

담양군 담양읍에서 살아온 그는 2017년 4월께 파킨슨병 2기 진단을 받았다. 병은 빠르게 진행됐고, 현재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찾아왔다.

남편이 모아준 이면지 위에 처음 색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는, 진통이 달한 순간을 틈타 완성한 1천여 점의 그림 중 선별한 45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최은순 작가는 "이런 행복한 시간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딸들이 아픈 엄마를 위해 그림들을 정리해 책으로 묶어 주고, 이번 전시회도 깜짝 선물처럼 준비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도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담양=정승균기자



## 제22회 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제전 성료

제22회 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제전이 지난 15일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악 인재들이 참가해 명인부부터 초등부까지 총 7개 부문에서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대체전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명인부부터 초등부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명인부 대상은 송은영 씨가 차지했으며 일반부 대상은 이경혜 씨, 학생부 종합대상은 국립전통예술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다겸 학생에게 돌아갔다.

중등부와 초등부에서는 각각 문경령(국립전

통예술중 2학년), 김근아(대교초 6학년)가 대상을 수상했고, 유강초등학교 팀이 초·중등 단체부에서, 황영덕 씨가 신인부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현장에서는 전통의 깊이를 더한 깜짝 경품 이벤트도 열렸다. 순창 도예작가 권운주 대표가 협찬한 대표작 '달 향아리'를 비롯해 남도국악사 허연희 대표와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조준석 명인의 전통국악기들이 경품으로 제공되며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를 주최한 문명자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대표는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한 울림은 이시대의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귀한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동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